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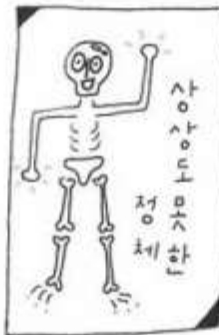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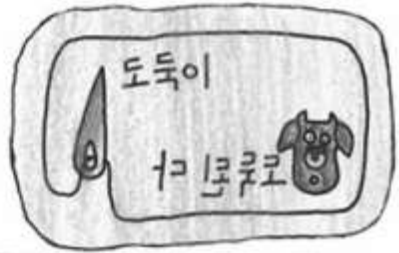


더불어 행복한 사람

gandhischool.org



도난하지 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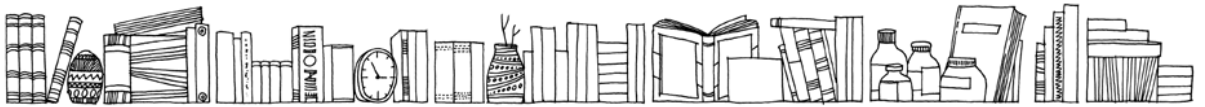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월 7일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님을 학교로 모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는 과정에서 독립이 된 것일 뿐이라고요. 그러한 주장에 맞서기 위해 어떤 분들의 성함을 이야기하면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윤봉길, 이봉창, 김구, 여운형... 여기에 ‘빨갱이’로 몰려 잊혀져 가고 있는 더 많은 분들의 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일상다반사 담당 교사 김정환



차례

간디인 갤러리 도란하지 맙시다.

- 02 여는글 봄 그리고 봄 :: 박우제 편집장(5학년)
- 06 특집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 권윤서 기자(4학년)
진짜, 가짜에 가려지다! 팩트체크, 가짜뉴스에 대해서 :: 윤수민 기자(5학년)
아~ 배불러 :: 김서준 기자(3학년)
똥 먹기 :: 조연지 기자(5학년)
간디신상 제천간디학교 신상을 만나보세요 :: 최현서 사진기자(2학년)
Hey~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 조예나 기자(2학년)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기 위해 :: 이성민 기자(4학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김담 사진기자(5학년)

- 36 광고 인도 모금 홍보
- 37 스케줄러
- 40 간디인의짧은소식
- 42 기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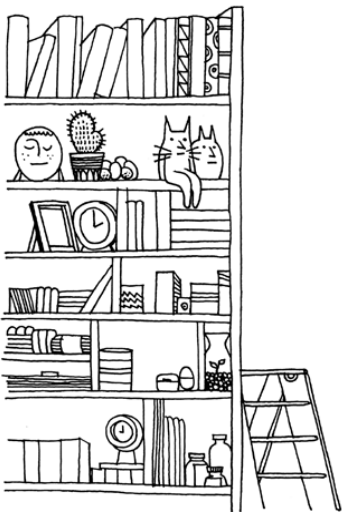


그림 · 미스터 김



〈봄 그리고 봄〉

박우제 편집장(5학년)

봄

봄입니다. 보통 연상되는 봄의 이미지는 따뜻하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주변은 푸른 기운이 되살아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덕산은 봄과는 멀어 보입니다. 곳곳에는 어제 내린 눈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봄옷 입기엔 글렀군요. 언제쯤 긴팔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서 빨리 봄비가 겨울 쓸어가서 두꺼운 긴팔을 내려놓길 바랄 뿐이죠. 이런 봄 같지 않은 봄을 맞이하고 있는 추운 시골마을 덕산입니다.

**“잊지 않게 잊지 않게 절대로 잊지 않게
기억하게 다 기억하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이맘때가 되면 꼭 다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2014년 그해 봄 이후 5번째 돌아오는 봄입니다. 제천간디학교는 또다시 그해 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행동합니다. 4월 4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4월 10일에는 4.16, 4.19 기억 마라톤을 진행했고, 4월 13일에는 ‘세월호 참사 5주기 1000인 합창단’에 참여하여 안산에서 1000여 명과 함께 합창을 하였습니다.

바라봄

세월호 참사 당시 그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

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엄마가 어두운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뭘 일인가 싶어 엄마의 옆에 앉아서 TV를 시청했습니다. TV에는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는 전원 구출이라는 타이틀을 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란 생각이 들었던 한심한 뉴스였죠.

그 일 이후 저는 점차 커갔습니다. 옛날에 꼬마는 없었고 웬 청소년 하나가 있었죠. 조금도 사회에 관심이 없던 저는 이때를 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국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났던 때였고 KBS, MBC에 직원들이 다 파업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 또한 방영이 중단되어 굉장히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라 불만 많고 사회는 어지럽고 그랬습니다.) 그때 한 영상을 봤습니다. 공영방송 이야기였습니다. MB 정권이 집권한 이후 진행한 언론 장악, 그리고 정부에서 내주는 받아쓰기 숙제하는 곳이 되어버린 공영방송,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까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 공영방송이 어떻게 침묵하는지가 나와 있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화가 나더군요 특히 세월호 참사 부분에서 말입니다. 어린 저를 속였던 그 뉴스들과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들이대며 고통의 무게를 깎아내리려던 뻔한 속셈의 뉴스들이, ‘모르면 당한다.’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사회에도 별 관심 없고 무슨 일이 터지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곧 관심이 없던 것에 대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도서관으로 가서 세월호 관련 책을 읽었

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아이들의 꿈을 버린 국가에 대한 유가족들의 비통한 감정들을 담아낸 책이었는데, 너무 슬픈 책이었습니다. 2학년 3반 김소연 아버지 김진철 씨의 이야기, “세상에 딸하고 나, 둘만 남겨졌는데 그 아이를 잃었어요” 에선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접어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몰랐던 것에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봄 그리고 봄

어느덧 5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입니다. 아직도 시간은 흘러갔지만 진실은 그날에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을 그날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은 저 아래 세월호가 떠나간 진도 앞 바다에 잠들어 있습니다. “왜? 박근혜 7시간을 깊숙한 곳으로 묻는지”, “왜? 세월호 DVR를 장치 조작하고 바꿔치기했는지”, “왜? 해경은 표적 구조만 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은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밝혀야 할 진실도 물어야 할 책임도 더는 없는 듯 굴러갑니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권의 잔재들은 아직도 집요하게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징하게 해쳐먹는다.” 등 뉴스를 통해 전해 듣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이야기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4월 4일날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안 좋은 시선과 말들에 상처받아왔을 유가족 분들에게 따듯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

서 한 마디 여쭙보았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시나요?”라고요. 힘들진 않으시냐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유가족 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 사회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4.3일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4.3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빠른 시일 내로 세월호 진실도 규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거짓이 걷히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다반사 기자들의 이야기를 하며 끝내겠습니다. 올해 1학기 일상다반사 내부회의를 통해 ‘간디IN’을 계간 호에서 학기 호로 개편했습니다. 여태 일상다반사 기자들은 바쁜 학교 일정을 소화해내며 동시에 ‘간디IN’을 만들어왔었습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정들을 소화해 내기가 버거워졌었고 결국 ‘간디IN’은 한 학기에 한 번만 내기로 했습니다. 대신 ‘간디IN’을 더욱 알차게 채워 넣기로 했으니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번 호에서 윤수민 기자는 요즘 화두인 가짜 뉴스들을 취재하고 교내 새로 만들어진 팩트체크 팀을 소개하는 기사를 씁니다. 요즘 사회가 흥흥한 만큼 독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윤서 기자는 거짓의 둘레에서 못 나오고 있는 세월호에 관해서, 간디학교 학생들의 이야길 담담하게 전해줄 예정입니다. 조연지 기자는 간디에 상징 생태화장실에 실태에 대해 보고할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까지 점쳐봅니다. 김서준 기자는 또 하나의 논란거리인 일반식품에 대한 생각들을 전달해줍니다. (논문 쓴다고 징징

대지만 자기가 제일 어려운 기사를 선택한 건 비밀)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조예나 기자와 최현서 사진기자는 학교에 새로운, 모든 것들을 취재합니다. 열정이 맘에 듭니다. 이성민 기자는 ‘제천간디학교와 성’이란 무거운 주제로 기사를 씁니다. 편집장으로써 가장 기대되는 기사 중 하나인데 잘 써주었으면 좋겠군요. 현재 남아있는 기자들 중에 제일 오래 활동한 ‘최고참’ 김담 사진기자는 사진기자 짬밥 좀 먹었다고 ‘간디IN’ 속에 단독 사진전을 연다고 합니다. 아..! 일상다반사의 상큼한 신입기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한준 신입기자 그리고 이기범 신입기자과 박석현 신입 사진기자인데요. (짹짹) 높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세 신입기자를 환영하며 앞으로 열심히 하여 저를 뛰어넘은 대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15년도 가을, 처음 들어왔던 일상다반사, 어리숙했던 꼬맹이는 최고참이 되어 일상다반사를 나갑니다. (드디어!!) 좋은 기억도 있고 힘들었던 기억도 나는군요. 그래도 일상다반사는 생각보다 아주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상다반사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남기며 2019년도 첫 번째 ‘간디IN’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¹⁾

권윤서 기자 (4학년)

2014년,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여 행가는 가족들이 타고 있던 배였습니다. 충분히 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정부에게 국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함께 노력 하고 했죠. 우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해야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간디학교 곳곳에도 세월호 관련 스티커, 팔찌, 리본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디학교 학생들은 왜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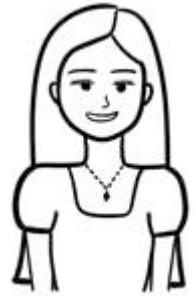
‘너희들은 세월호가 어떤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어?’

솔직히 나는 그냥 사고로 받아들였어. 뉴스에서 전원 구조되었다
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단순한 사고가 아니더라고. 세월호는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건이잖아. 심지어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거야.



1) 세월호 추모 노래 중 한 구절.

‘내가 아는 건 많지 않아. 배가 침몰했는데 국가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이라고 생각해. 여러 의혹,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엄청 많고,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지.’



아직도 세월호가 일어나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 나.
 세월호를 처음 접했을 때는 금방 지나갈 사고라고 생각했었는데 2주가 지나도
 뉴스에 나오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
 그런 걸 보고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커서 더 깊게 생각하고 더 파헤쳐보니 정부가 잘 못한 일더라.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진지하게 이민갈 생각까지
 했었지만 그 때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탄핵되면서 정부가 교체되었지.
 앞으로 세월호 사건이 제대로 조사 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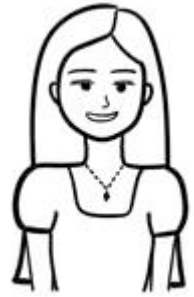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잊으라고, 우려먹는다고 하잖아.
 그건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왜 기억해야할까?’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너무 화가 나.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인데. 국가는 계속 외면만 하잖아.
 제대로 밝혀진 진실도 없고 세월호가 왜 일어났는지 무슨 사건인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단순한 사고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이해가 안되는 데 유가족은, 피해자는 어떨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야.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덮어둘 수가 있어.
 진상규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추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빨리 진상규명이 되어야지.”



‘일단 지금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사고가 난지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많고, 세월호에 관한 의혹도 엄청 많잖아. CCTV도 공개가 안되고, 문제가 많은 거 같아. 사실 난 세월호는 거의 학살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배에서 나가라 하지 않고 아무도 구조해주지 않았잖아. 세월호는 꼭 기억해야 해.’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었고,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못 구한 것도 아니고 안 구했던 거잖아. 특히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은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너무 끔찍해.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많아.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기억해야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왔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기억해야한다고 생각해?’

‘실리콘 팔찌, 가죽 팔찌를 꼭 차고 다녀. 천인 합창단이나 청원처럼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에도 참여하고. 학교에 유가족 분들이 오셔서 진행한 문화의 밤²⁾에도 열심히 집중해서 참여했어. 세월호 스티커도 여러군데 붙이고 다니고, 리본도 가방에 달아 뒀어. 예전에는 뜨개질로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 그냥 여기저기에 세월호 관련 된게 많으니깐 볼 때마다 기억나고 되게 자주 기억할 수 있는 거 같아.’



2) 한달에 한번정도 진행되는 프로그램. 음악, 연극 등 여러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문화의 밤은 세월호 유가족분과 함께 하는 간담회였다.

‘나는 핸드폰 비밀번호도 0416이고 들고 다니는 가방에 뱃지도 달고 리본도 달아.
 생활 속에서 늘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도 거의 참여하는 편이고, 기억하는 거량은 별개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지 않고 참된 진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허위자료,
 기사에 속지 말고,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하는 거 같아.’



‘난 가끔씩 뉴스 혹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
 세월호에 관련 된 정보, 소식들을 찾아 봐.
 관련 된 게시물이나 기사가 있으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요즘에는 교무실이나
 도서관, 어디를 가든지 세월호에 관련 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 같아.
 예전에 비해서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무뎠졌지만 매년 4월이 돌아오면 조금씩
 늘어나는 피켓이라던지 스티커를 보면서 씁쓸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면 소식도 더 찾아보게 되고, 세월호가 무슨 일인지 알아야
 제대로 된 기억을 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생각해서 더 열심히 찾아보게 돼.’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도 각기 다르지만 동시에 같기도 한 거 같습니다. 모두에게 아프고 슬픈 상처이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동안 세월호는 인양되고, 특조위가 구성되고 여러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얘기하듯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여러 의혹 등등. 국가가 밝혀야 것들은 많이 남아있습니

다. 우리는 언제쯤 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기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억하겠죠.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여러 곳에 세월호 스티커를 붙이고, 뱃지를 달고, 리본을 묶습니다. 리본, 뱃지, 스티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죠. 한 학생이 말했 듯 기억하지 않으면 영원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기억하고 노력합시다. Remember 0416

진짜, 가짜에 가려지다!

팩트체크, 가짜뉴스에 대해서

윤수민 기자(5학년)

간디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탐정입니다. 탐정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대체로 뉴스라는 매체로 정보를 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SNS의 확산으로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무엇을 믿고 계시는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짜뉴스와 그에 맞선 팩트체크에 대해 알아보시다!

학생: 우선 가짜뉴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가짜뉴스란 대체 뭐죠?

탐정: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말합니다. 기존의 가볍게 떠도는 '루머'나 '패러디' 실수로 잘못 전해진 '오보'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퍼트려지지요.

학생: 아..아닛! 그런 거였다니...그렇다면 어떻게 이익을 취하고, 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탐정: 광고주가 중개업체¹⁾에 돈을 지불하면 중개업체는 조회수에 따라 높은 금액의 광고를 사이트 안에 배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관심가는 제목의 기사를 클릭하게 되고, 그 사이트의 주

인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짜뉴스는 '정치적 영향력'을 주거나 '특정 인물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뉴스', '터무니없는 거짓 정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등으로 사람들에게 선택되기 때문에 자극적 콘텐츠가 돈이 되고, 유포자가 가짜뉴스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유포하면 여러 가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등)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로 현상과 함께 좋아요, 공유하기를 통해 퍼집니다. 그렇기에 진짜 뉴스보다 가짜뉴스를 더 쉽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 흠..생각보다 문제가 많군요.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떤 게 있어요?

탐정: 최근 일어난 가짜뉴스 2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중개업체: 주로 구글에드센스 (광고 중개 서비스)에 돈을 지불한다.

첫 번째로 '강원도 산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는 지난 4월 4일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했다는 내용으로, 최초로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한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가관리센터에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다'라며 음주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 행정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희인 재난 안전관리본부장에게 '대통령께서 술에 취해계셨느냐'라고 물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등등과 같이 일부 의원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면책특권²⁾에 기대어 정치적으로 악용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가짜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이 해외에서 조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2019년 5월 5일)까지 177만 명을 넘고 있는 청원의 14만 명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는 건데요. 이 조작설은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기하였습니다. 이후에 국제신문에서 보도하였으며,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오기 전 시점의 베트남 접속률을 현재 접속률인 것처럼 하여 조작설을 퍼트렸습니다. 이후 유튜브에서 중국인 개입설까지 언급된 후,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조작설을 발언했고 이를 여러 매체가 아무런 검증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강원도 산불 문 대통령' 행적에 대한 가짜뉴스는 '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과 연관지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추려 유포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퍼트려 혼란을 준 것이죠.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가짜뉴스도 비슷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네티즌이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측되며,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조작설을 발언함으로써 확실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개의 사건 말고도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을 위해 수많은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에 맞선 여러 '팩트체크' 방송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생: 그런 일이 있었다니.. 오! 헌데 '팩트체크'라는 말은 뭐죠?

탐정: '팩트체크'는 'fact'와 'check'의 합성어입니다. 즉 '사실을 검사하다'라는 뜻이 되어 사람들에게 가짜뉴스의 민낯을 알리는 단어로 쓰이죠. 가짜뉴스는 꾸준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팩트체크'라는 말도 유행을 타게 된 거죠.

학생: 나도 이제 진실만을 보겠어! 팩트체크를 하

2)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특권.

는 여러 방송 매체들을 알려줘요!

탐정: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TV에서는 KBS 팩트체크, MBC의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등 여러 방송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JTBC팩트체크는 '김필규' 기자와 팩트체크 제작팀이 만들었고, 다른 TV 팩트체크 방송과 달리, '매일' 보도해주는 것이 전 세계를 통틀어 독보적입니다. 이미 나온 기사나 온라인상에 퍼진 이야기만을 다뤄 진실을 알려줍니다. 위에 최근 가짜뉴스 내용도 jtbc에서 다룬 내용이며, 큰 정치적 가짜뉴스와 사소한 일상적인 가짜뉴스까지 모두 다룹니다. 또한, JTBC 팩트체크 내용을 모아 주제를 나눠 총 3권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TV 방송이 아닌 라디오, 홈페이지로 팩트체크를 해주는 매체도 있습니다. YTN (FM94.5)에서 진행하는 열린 라디오의 '팩트체크'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0분에 한 주간 논쟁거리가 되었던 가짜뉴스들을 팩트체크 해주고, 서울대학교의 SNU 팩트체크 센터는 홈페이지에서 27개의 언론사의 협업으로 온라인에 퍼진 기사들의 팩트를 검증하여 보여줍니다.



채식하면서 느낀 몸에 변화가 있어?

채식을 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긴 했는데, 난 피지가 왕성할 때여서 엄청난 차이를 보진 못 했어. 근데 몸이 되게 가벼워지긴 했어. 채식하면 열량이 빨리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깐 빨리 배가 고파지고 그

래서 끼니를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아. 그만큼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깐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걸 탄수화물로 채워서 난 내가 탄수화물 중독자인 줄 알았어. 그래도 채식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어.

학생: 우와~이렇게 많다니.. 소문으로는 제천간디 학교에도 팩트체크 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탐정: 오~ 어떻게 아셨죠? 제천간디학교에도 대장 ‘김정환’ 선생님을 선두로 활발히 활동하는 학생 ‘팩트체크’ 팀이 있습니다!

팩트체크 팀은 고성일님, 정우진님, 신주현님, 이성민님, 대장 김정환 선생님께서 구성되어 있고, 저번 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팩트체크’ 라는 말은 가짜뉴스의 진실을 알리는 단어이지만, 간디학교 학생들은 가짜뉴스의 진실보다는 3.1절 축사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문재인 3.1절 축사’에 언급된 사건들을 팩트체크 해 알리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3.1절 축사에 언급된 내용을 키워드로 나눠 조사했고, 그중 고성일님, 정우진님이 팩트체크한 내용 중 일부인 ‘비무장 지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종단철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축사에서 “이제 비무장 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비무장 지대에 탐방로를 만들어서 국민이 함께 공동사용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실제로 DMZ 둘레길이 한 코스 개방된 상태이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면 남북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

하므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난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남북 공동의 땅을 함께 사용하자는 통일 지향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꾸린 공단(산업단지)을 개성공단이라고 부릅니다. 남한은 기술, 북한은 토지와 인력, 자원이 발달하여있는 양국의 장점을 이용해서 상호 간의 경제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멈췄던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비무장 지대와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통일 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남한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분단의 아픔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공동의 자연을 함께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금강산 관광만이 아닌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친척이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남북만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까지 이어져 있는 종단철도를 만들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물자, 자원까지 이동시키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돕고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 친일 잔재청산에 대한 부분과 연설에 담겨있는 자잘한 말의 뜻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분기마다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자세한 추후 계획은 알 수 없지만, 간디 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 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우와~ 멋있다!! 저도 팩트체크 팀에 들어가
고 싶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짜뉴스를 구
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탐정:

첫 번째, 뉴스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유명 언론의
인터넷 주소를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웹페이지 주소
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짜뉴
스는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이기도 하므로 내용을 파
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근거자료와 작성날짜를 확인합니다. 가
짜뉴스는 근거자료가 희박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뉴스와 비교해 보
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맞는지 확인합니
다. 전문가로 속여 말하는 예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
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해서 나오는 가짜뉴스들에 속지 마시고 우리 모두
가짜들에 가려진 채 살지 맙시다! ✂

니다. 학부모들은 지역모임과 학년모임에서 학생들의 일반식품 과다 섭취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였고, 그 후 2019년 2월 27일 2019 겨울 학부모성장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부모성장학교에서도 일반식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일반식품 과다 섭취에 대하여 4개의 주제로 나눠서 논의를 진행하였고, 다음은 2019년 겨울 학부모성장학교 준비과정에서 취합된 학부모 측의 의견입니다.

두 주제의 의견 수는 총 32개입니다. 그 중 일반식품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27개에 달했으며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단 한 개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일반식품 과다 섭취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점 이용에 관해 부모의 의견이 학생들의 의견 이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 라든지 부디 ‘학교 규칙을 개정해 좋은 먹거리를 먹었으면’ 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학부모들은 일반식품 자제가 아닌 일반식

“밤마다 자유롭게 먹는 라면, 교육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매점 사용에 관해 부모의 의견이 학생들의 의견 이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

“식단 이외의 간식거리도 충분히 제공되길, 학교 옆 매점의 경우 강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학생, 부모, 교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지킬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 인 것 같다.”

“아이들의 건강 우려, 주방선생님들의 수고에 대한 미안함, 이로 인해 일반식 금지하자.”

“부디 학교규칙을 개정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부모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학생들의 일반식품 섭취량이 심각하다고 느끼며, 일반식품을 과다 섭취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문제점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생들의 일반식품을 자제를 위하여 용돈 규정을 잘 지키고 가정에서 노력하자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가지의 주제 중 ‘생활관’과 ‘정책 수립 시급’ 주제에서 나온 의견들 중 일부입니다.

품 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회는 학부모 측의 의견을 받아 일반식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김수자 선생님께서 일반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공첨가물의 위험성과 현재 우리 학교 일반식품 섭취 실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충주·제천 한 살림 이사이신 류귀에 님께서 일반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일반식품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백지화 이후 자연스럽게 학

교 내에서 이루어졌던 일반식품 섭취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일반식품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축제와 학급활동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일반식품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를 유지 중입니다. 또 2019 개학 맞이 오티 주간 때 총 4교시에 걸쳐서 두 번의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지화 이후 일반식품 과다 섭취의 주원인은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의 사전적 정의는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지만 학교에서는 방이 바뀌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방 사람들 다 같이 라면이나 치킨을 먹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남자기숙사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외에도 집에서 라면을 사온 후 일요일에 먹거나 친구들과끼리도 컵라면을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간담회를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여자기숙사 사감 선생님인 강미리 선생님은 백지화 전의 간담회는 일탈을 했을 때 느끼는 스릴감으로 인해 몰래 일반식품을 먹었지만 요즘에는 분위기를 띄우는 목적과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담회로 인해서 일반식품 섭취가 잦아지고 그로 인해 두통, 복통, 아토피 등등 다양한 질병을 앓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먹거리 교육 이후 강미리 선생님 방 싱크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강미리 선생님이 느끼기에 학생들도 일반식품의 문제점을 느끼면서 줄여나가는 중인 것 같다고 합니다.

남자 기숙사에 사는 몇몇 사람들의 취재를 통해

현재 남자 기숙사의 일반식품 섭취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일반식품 섭취량에 대해서는 남자 기숙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느끼며 특히 라면(컵라면)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간담회로 인해 몇몇 학생들은 다음날 몸이 아프고, 뒷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분리수거장과 화장실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 기숙사 학생들 중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었으며 규칙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전면 금지보다는 공간 제약이나 시간 제약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만 막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 대부분은 일반식품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며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회가 일반식품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연스레 그동안 무심코 먹어왔던 일반식품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일반식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더 나아가 일반식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까지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개학한지 3달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반식품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이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 2분기 분기 수업으로 집행부에서 '이사가기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작년부터 먹거리에 대한 여론 조사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2019 집행부 거

을 LT 때 학생들의 일반식품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라도 먹거리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의도로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2017년에 진행됐던 전자기기 규칙 공동발안인 '리까꿍 공동발안'과 동일한 형태로 먹거리 규칙을 제정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현재에 최적화 된 규칙 안을 만들어서 가족회의 안건에 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며 어떤 규칙이 생겨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 학생들의 여론에 힘입어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우리에게 알맞은 규칙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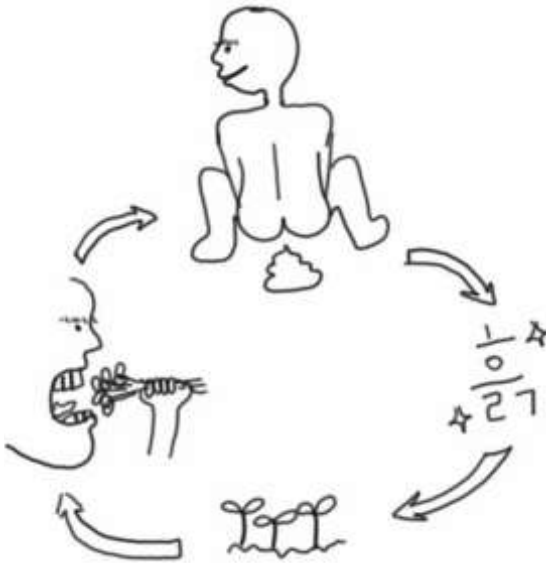
학부모들의 일반식품을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시작으로 교사회를 거쳐 학생들도 먹거리 규칙 제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먹거리 공동발안 수업을 개설하기까지 먹거

리 문제에 대해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또한 백지화가 된지 3년이 지나서야 먹거리 규칙 제정 공동발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먹거리 규칙 제정 공동발안을 시작하게 된 것도 교사회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 대다수가 일반식품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일반식품 섭취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때만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 그리고 먼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 수동적인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먹거리 관련 규칙 외에 꾸준히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며 백지화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들은 속도가 더디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기사를 마칩니다. 🌻

똥 먹기

조연지 기자(5학년)

우리 학교는 모두가 생태 화장실을 사용한다. 생태 화장실은 옛날 뒷간같이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이다. 똥을 싸고 나면 왕겨와 함께 똥을 발효시켜 거름으로 만든다. 우리가 싼 똥을 삭히면 땅에 좋은 거름이 된다. 좋은 땅에서 키운 작물은 건강한 먹거리가 되어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때 생기는 강과 바다 오염을 막고 물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에도 사람에게도 좋은 생태 화장실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이나 우리 학교 생태 화장실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생태 화장실의 문제

생태 화장실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똥과 오줌을 거름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과 거름을 만들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규칙백지화가 시작되면서 일반 식품이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게 되었다. 말만 자제지 일반 식품이 완전히 풀리게 되었다. 식품관이 바뀌게 되면서 똥과 오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 식품 속 화학성분 때문에 똥이 잘 썩지 못해서 거름이 되긴 하지만 삭힐 때 시간이 길어졌다. 학교 생태 화장실에 오줌을 처리하는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싸는 오줌이 그대로 땅에 스며들고 있다. 관찰한 결과 생태 화장실 밑에 오줌물이 푹푹 떨어져 웅덩이가 생겼다. 원래는 오줌을 활성수라는 것으로 거름을 만들었는데, 고장 나면서 이렇게 방지하게 되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우리 학교에는 거름을 만들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거름을 만들려면 똥을 6개월 동안 한곳에 모아 삭혀야 한다. 오줌은 2주만 삭혀도 쓸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오줌 양이 너무 많다. 학교에는 거름을 만들 수 있는 공간과 그 거름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 계속 계속 쌓이는 오줌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많은 똥을 거름으로 만들 공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거름을 만들고 보관할 공간이 없다.

학생들의 생각

이런 이유로 우리는 생태 화장실을 통해 자연순환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서 생태 화장실은 사용하는 가치가 없다. 교사회에서 이렇게 사용할 바에는 생태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자

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학생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생태 화장실을 계속 쓰자는 사람이 43명, 수세식 화장실과 생태 화장실을 같이 쓰자는 사람이 10명 수세식 화장실만 쓰자는 사람이 7명이었다. 여론조사를 참여한 사람 중 과반 수 넘는 학생들이 생태 화장실을 계속 쓰자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사람들 바람대로 생태 화장실을 없애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학교에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수세식 화장실과 생태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거름으로 만들어야 할 똥과 오줌의 양이 줄고 거름을 만들어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작아질 것이다. 그럼 공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태 화장실을 계속 쓰려면 일반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 집행부에서도 일반 식품 규칙 만들기 프로젝트로 '먹거리 규칙 공동 발안'을 2분기부터 진행하고 있다. '먹거리 규칙 공동 발안'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반 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필요한 규칙을 안건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건강한 거름을 만들 수 있다. 여론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한 만큼 관심을 가지며 사용해야 할 것 같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생활을 위해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멋지다.

여름에는 오줌 찌린 내가 코를 따갑게 하고, 겨울에는 한기가 느껴지며 비 오는 날이면 똥을 압축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수세식 화장실보다 불편한 점이 아주 많은 데도 학생들은 생태 화장실에 대한 애정이 넘쳐 보인다. 많은 사람이 사는 학교에서 모두를 만족할만한 화장실은 없다. 그래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철학을 가진 간디학교에서는 조금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연을 순환할 수 있는 생태 화장실을 사용할 가치가 있다. 평범한 학교생활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화장실을 우리 함께 잘 사용합시다. 🌱



간디신상

제천간디학교 신상을 만나보세요

최현서 사진기자(2학년)



공생위에서 곧 부러질 듯한 다리를
다시 나무다리로 고쳐 주셨어요.
너무 튼튼한 것 같아요!



새로 지어진 주차장 들어가는 길 쪽에 장승이
생겼답니다!
이 장승은 주차장 입구를 위해 잘려야 했던 나무를
이용해 동네 이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학교는 이 장승을 학교의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우리학교에 주차장 입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운동장에 주차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학교의 15명의 새로운 얼굴이 왔습니다!
바로 1학년 친구들인데요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Hey~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조예나 기자(2학년)

여러분!! 요즘 우리 학교의 최고의 스타 병권쌤과 지선쌤을 아시나요?
학교에 오신지 3달 만에 우리 학교 최고의 스타 자리의 오르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대단한 분들을 아직 모르신다고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보도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모두 유머러스 병권쌤과 상큼 발랄 지선쌤의 매력의 빠질 준비되셨나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병권: 저는 이번에 새로 온 여병권이고, 남자 생활 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선: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 안투 아반 부담임을 맡고 있는 안지선입니다

제천간디학교를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병권: 저는 계절학교도 2번 와보고, 친구들 중에서 제천간디를 졸업한 친구들이 많아서 원래 제천간디 학교를 알고 있었어요. 계절학교를 왔을 때, 희석쌤의 제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선: 대안학교에 관심이 생겨서 대안교육연대 같은 카페에 가입을 해서 대안교육이 뭔지 찾아보던 중에 제천간디학교 신입교사를 모집을 한다는 글을 보고 학교철학이 마음에 들어서 왔습니다.

학교 오시기 전에 하시던 일은 무엇인가요?

지선: 저는 일반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병권: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석사까지 졸업하고, 박사 준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지선: 아깝다... 박사까지 다 하고 오시지

병권: 막막해서 지금 온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좋았던 점은?

병권: 아이들이 착하다..? 가끔 말도 안 듣고, 규칙도 안 지키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키지만 착하다. (웃음)

지선: 일단 애들이 정말 해맑고 저랑 잘 맞아요!!

그럼 반대로 불편했던 점은?

병권: 저는 생활 쌤이니까 쉬는 날에 제대로 쉴 곳도

없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주말에 못 쉬는 거랑 이걸 사감의 고충이긴 하지만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느낌?

지선: 저는 시골이요. 여기가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면접 볼 때는 덕산으로 데리러 와주셔서 '이정도면 괜찮겠다.' 했는데 여기서 덕산까지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집 구하기가 힘들어요.

병권: 저는 생활 쌤이니까 방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신입 선생님들은 오시자마자 집 구하기부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과 시간 외의 취미 생활은?

병권: 저는 운동이랑 책읽기 정도..?

지선: 저도 책을 멀리 하다가 요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 취미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인터넷 쇼핑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쇼핑중독 될 거 같아요(웃음)

쌤들의 우정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바로~

이구동성 게임!

병권: 근데 우리 취향이 정반대인데?

검은색vs흰색

같이: 흰색!!

지선: 시작이 좋은데?

사이다vs콜라

지선: 콜라

병권: 사이다

지선: 쌤 사이다 좋아하세요?

병권: 저는 콜라보다 사이다

지선: 저는 쌤이 콜라 좋아하실 줄 알고 콜라 했는데 저도 사이다 더 좋아해요.

병권: 이걸 서로 배려해서 틀렸네요. 조금 아깝다.

선호쌤vs병곤쌤

병권: 이걸 조금 어려운데..?

지선: 저는 두분 다 안 고르고 싶은데(웃음) 그냥 은정 쌤 하면 안돼요?

병권: 저희는 그냥 은정 쌤 하겠습니다.



(병권쌤 질문)

지금까지 생활 쌤을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은 무엇인가요?

병권: 애들이 변기가 막혀도 뒤처리 안하고 그냥 가는 거. 저번 주말에 변기 4칸 중에 3칸이 막혀서 '똥어뽕'을 사러 아침 일찍 충주에 나간 적도 있고, 한번은 변기가 막혔는데 물을 계속 내려서 변기물이 역류한 거예요. 동장¹⁾하고 제가 다 치웠는데 그때

1) 기숙사의 대표.

2) 도난 혹은 학칙을 어겼을 때 진행되는 회의로, 모든 일상생활을 중지하고 다 같이 모여 진행되는 회의이다.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생활관이 초반부터 스태프회의²⁾를 많이 했는데 사감선생님으로써 말씀해주세요.

병권: 회의로 해결책을 찾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가 폭력도 안 되고, 정확도 안 되고, 뭐 경찰을 부르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도난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건도 아니었고, 잘 해결이 됐거든요. 이 스태프회의 이후로 남의 방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만질 때 조심하게 되는 분위기가 생겼던 걸 보고 회의가 '의미가 있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회의가 길어지면 잠을 못 자는 것 빼고는 괜찮은거 같아요.

아이들의 생활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점이나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하는 점이 있다면?

병권: 애들이 청소를 너무 안 하는거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계절학교 때 남자화장실 지린내가 만광까지 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왜 지린내가 만광³⁾까지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검사를 엄하게 하니까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자기 물건 관리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난 위험도 심해 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선쌤 질문)

일반 학교와 우리 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느끼세요?

지선: 일단 제일 크게 느낀 건 2가지가 있는데, 요즘 애들하고 다르게 다들 밝고 해맑아요. 그게 너무 보기 좋고, 또 다르다고 느낀 점은 회의가 많고 긴 거?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회의가 많더라고요. 일반학교 회의는 10분 안에는 다 끝났는데, 우리 학교는 거의 기본 1시간 30분 정도니까 빨리 회의 끝내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죠. 회의가 너무 많은것같아요 학생도 교사도.



지선 쌤은 저희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한게 있나요??

지선: 음... 회의시간에 적응하려고 한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적응이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반학교는 회의시간이 짧으니까 여기 와서 회의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용어!! 예를 들어서 주여⁴⁾, 만광, 주프⁵⁾, 무병⁶⁾, 한끼대접⁷⁾, 그리고 막 동아리 이름 같은 것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고 나중에 알았죠...

병권: 저도 처음에 만광이 한자로 빛이 들어온다고

3) 만남의 광장의 줄임말. 여자기숙사와 남자 기숙사의 중간에 있는 공간입니다

4) 주를 여는 시간의 줄임말. 다 같이 모여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5) 주제 프로젝트의 줄임말

6) 년의 1번 6월에 각 학년별로 주제의 맞춰 외부로 나가 배움을 찾는 활동입니다.

7) 각 반이 1학기에 한 번 전교생에게 한끼를 대접하는 활동입니다.

해서 만광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만남의 광장
출입말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의 다짐은?

병권: 다짐...? 음... 재밌게 살자.

지선: 음... 나도 재밌게 열심히 살자.

병권: 애들이 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욕을 좀 줄어든게 하는 것도 다짐 중에 하나죠.



<TMI⁸⁾>

병권쌤의 TMI

지리산 갔다가 4일 동안 안 씻어본 적이 있다.

자신의 노트북 건드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다른 사람 옷에 깃털이나 부스러기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꼭 떼어 줘야한다.



지선쌤의 TMI

자기 옷에 뭐가 묻는 걸 싫어한다.

출입말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셀프 네일을 했는데 2주 동안 지속됐다.

5월2일 아침에 방에서 거미가 나왔는데 너무 바빠서
그냥 나왔다

학교에 있던 새끼 고양이를 보러 갔는데 안보여서
찾다가 지금 인터뷰하러 왔다.

인터뷰가 너무 즐겁게 진행되어 기자마저 선생님들의
매력의 빠져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매력을
발산할 선생님들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병권 쌤과 지선 쌤 정말 감사합니다:D 🍷

8) 요즘 신조어. Too Much Information의 출입말이며,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알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나친 정보들을 말합니다.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기 위해

이성민 기자(4학년)

최근 한국 사회는 성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제천간디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몇 해 전부터 페미니즘, 성소수자 관련 수업이 꾸준히 개설되었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도 적지 않았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분기 주제¹⁾로 <10대의 성>이 선정되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제천간디학교에서 '성'이란 무엇일까. 우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1.

제천간디학교도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사건에 대해 100퍼센트 안전하고 자유롭다고 장담 할 수 없다. 2014년 3건의 성 사건이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공유되었고 수차례의 간담회와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에도 2건의 성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우리는 성 사건이 등장하면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 함께 고민하며 각종 회의와 간담회를 시작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화는 나고, 할 말을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생각은 많은데 말문이

탁 막히는 그런 느낌.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고 복잡했던 것 같아. 그냥 이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

“학교를 같이 다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더 충격이었고, 간담회나 그런 데서 더 열심히 얘기했던 것 같아. 사소한 것이라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2014, 2015년의 큰 사건들을 거치며 학부모, 교사, 학생 삼주체 모두 공부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생각

1) 현재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은 1년 4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기마다 주제를 선정해 그에 따른 활동, 수업 등을 한다.

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는 1년에 한 번 방학 중에 열리는 학부모 성장학교에서 성교육이 진행된다. 많은 참여를 독려 하지만 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적지 않은 수의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교사 같은 경우엔 1년에 두 번 학기마다 한 번씩 여름, 겨울 방학 중 교사연수에서 성교육을 진행한다. 외부강사를 모셔 진행하기도 하고 교사 내부에서 서로 교육하기도 한다. 시기에 따라 화두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혐오발언을 주제로 잡아 학생들이 사용하는 혐오발언에 대해 공부하고 실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한 학기에 약 1~2번 진행한다. 개학맞이 O.T주간²⁾에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약칭 성안공)’이라는 이름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졌고, 6월에 있을 움직이는 학교³⁾ 전에 각 학년 별로 성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기 보단 성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그에 맞는 내용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2018년부터는 1년에 두 번 학기 말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 이것 저것을 바꾸고 개선한다. 교내 탈의실, 기숙사와 화장실 앞 가림막, 남자기숙사 샤워실 칸막이 설치, 생대 화장실 세면대 배치 등이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설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외부 숙박을 할 때 남여 숙소를 분리하고, 숙소공간과 공용공간을 분리하자는 등의 문화적인 약속도 함께 발전되었다. 성인지 전수조사는 개선의 역할 뿐만 아니

라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도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하듯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다.

2017년에 새롭게 짜인 각종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 각종 위원회 중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도 포함되어있다. 성평위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로 이루어져 있다. 성평위는 앞서 말했던 성인지 전수조사를 준비, 진행하고 제천간디 공동체 안에서의 성평등을 이야기 하는 단위이다.

2.

사회적으로도, 교내에서도 성에 대한 인식은 변해왔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페미니즘이나 퀴어라는 말도 보편화되었고 성차별과 성평등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시대이다. 학생들은 현재 학교 성인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좋아(높아). 근데 모든 진리와 정의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 좋은(높은)건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하고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는 수준이 엄청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예전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아닌 몇몇 개인의 목소리였던 거지. 요즘에는 다들 관심 가지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느낌이야. 좋아진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의 변화와*

2) 개학 후 일주일 동안 적용되는 O.T 주간

3) 무빙이라고도 하며 6월 한 달 동안 학년 별로 주제에 맞는 일정으로 지내며 주로 교외로 나간다.

4) 제천간디학교 교내 성소수자 소모임.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함께 학교에 장뜰⁴⁾도 생겨났고...”
 “높다고 생각해. 다들 잘 알고 있던데?
 외부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하는
 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우리 학교
 사람은 말할수 하면 ‘아 맞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안하니까.”

“예전과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가볍게 게이라고 놀린다든가 놀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 같아.”

“중상...? 근데 개인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 학년의 차이도 크고, 개인의
 차이도 크고, 약간 굳이 나누자면
 그래도 고학년이 높은 편이지. 우리
 학교 전체로 봤을 때 다른 학교 보다는
 높은 편인 것 같아.”

3. 5)

2018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된 필수 성교육 수업이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1
 학기에는 ‘젠더와 사회’라는 이름으로 4학년 대
 상의 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에는 ‘10대의 성’
 이라는 이름으로 1학년 대상의 수업을 진행한
 다. 1학년은 기숙형 학교를 처음 접하는 시기이
 기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교육이 한 학기
 정도 필요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4학년

은 사회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 학
 기 수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구조상 1학년은 한 학기 지내보고 2
 학기에 필수로 하고, 4학년도 다양한
 사회활동 하고 자기 진로 고민할 즈음인
 1학기 때 배치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거지.”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살펴보자. 10대의 성
 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며 잘 살
 아가는 방법, 흔히 성 지식이라 분류 되는 내용이 집
 중되어있다. 젠더와 사회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

‘젠더와 사회’ 수업계획서

- 담당교사

성교육교인연구모임 교사들(김수자, 김유하, 안재형, 유아름, 마은정, 카나다순)

- 수업목표

- 1)性を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 이해하고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기른다.
- 2) 젠더, 계급, 장애, 인종, 연령에 따라 만들어지는 소수자, 억압, 차별과 권력관계의 문제를 이해한다.
- 3) 올바른 성인상을 정립하고 여러 사회문제 및 현상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함을 기른다.

- 주별/차별 수업계획서

주차	주제	활동 및 방법
1	수업 소개	수업계획 소개 수업에서 지킬 규칙과 약속 정리하기
2	젠더감수성	젠더감수성, 성역할고정관념 테스트
3	성실·비성실	한국사회의 정상·비정상 성별이론별 이상·비이상급우의
4, 5주차 분반 교차수업	합법·불법 총론(가사분쟁)	나의 위치성(특권) 합법/불법, 좋은 것/나쁜 것
	미디어와 성	소비와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성역역, 우리 일상속 합모, 음란물
6, 7주차 분반 교차수업	존, 폭력	연말, 장애, 질병, 성별, 인종, 국적, 계급의 신체화이자 젠더와 배후질적지에 미 치는 영향
	개성신원	성격의사소통, 의사결정, 권력관계, 의사표현, 협상하기, 연애각론 낙태 vs 재생산권
8	젠더폭력	폭력의 일상성, 다양한 상황 - 폭력의 구조 젠더폭력 관련 법, 제도 (구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9	사회속의 성 (기말과제)	젠더, 폭마니즘, 여성 관련 이슈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심도있게 분석해보고, 질문 만들기
10	평가 및 정리	마무리 활동 / 수업평가 / 과립과제 제출

5) 3챕터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은 모두 김수자 선생님의 인터뷰 녹취록 중 일부이다.

듯이 사회 구조 속에서 젠더나 성별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자립기초 수업, 주제 프로젝트 수업 등의 필수 수업들을 계속해서 해제 시키는 전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필수 수업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교사회 내부에서도 성교육만 필수로 지정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성교육이 특정 학년은 필수로 지정 되어야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훨씬 크게 전달되었고, 그 결과 필수 수업이 개설되었다.

“사회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여성혐오, 젠더 문제, 페미니즘 문제, 작년에는 스쿨미투로 학교 안에서의 성평등 문제 등 성평등이라는 화두 자체가 시대적인 요청이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컸어. 또 한편으로는 14, 15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성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교내 또래 사이 성폭력 사건들을 몇 번 크게 겪으면서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성교육이 되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공감대가 올라온 거야.”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팀 티칭이라는 것이다. 교사 5명에서 수업을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수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교육이라는 것을 수학 교사, 국어교사, 영어교사처럼 전담교사가 있는 형

태보다 교사들도 팀을 꾸려 같이 공부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인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공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팀 티칭의 장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휴직, 퇴직, 혹은 그 밖의 이유로 교사의 자리가 비어도 수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팀 티칭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해. 2학기에는 윤하 쌤하고 아람 쌤이 5학년하고 인도를 가니까 2학기 1학년 수업에는 정상 쌤하고 민혜 쌤이 새롭게 투입되거든. 재형 쌤, 나, 은정 쌤, 그리고 정상 쌤, 민혜 쌤 5명이 1학년을 담당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필수수업은 교사가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 해줘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 티칭이 훨씬 의미가 있는 거지. 이를테면 내년에 어떤 선생님이 휴직을 해. 그럼 다른 선생님이 대신 들어와서 해야지. 그렇게 유지를 해가려고 팀을 짠 거야. 교사들은 내부적으로 언젠가 한번 쯤 나도 애들하고 성교육 수업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은 있어야 하는 거지.”

4.

수업은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새롭게 시도되는 수업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가르치는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이제 배우는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젠더와 사회’ 수강생인 4학년 16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해 물어봤다. 과연 학생들은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

고 있을까? 성교육 필수 수업의 필요성을 느낄까?

“토론 방식의 수업이 좋았어. 참여를 할 수밖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방식이잖아. 내 입장에서로는 원래 관심이 있던 주제라 나한테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아. 하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수업이)있는 거랑 없는 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 있으면 흘러들더라도 듣게 되는 거지. 원래 관심이 없었지만 수업을 통해서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수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어.”

“좋은 것 같아. 내가 모르던 지식들도 알 수 있고 이런 걸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조심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 것 같아.”

“나는 생물학적 남자잖아. 나는 공감을 못하는 것들 혹은 내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수업을 통해 ‘저쪽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만약 내가 수업을 못 들었으면 페미니스트를 안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봤을 것 같아. (수업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

“도움은 되는데 약간 재미라는 걸 잘 못 느껴. 그냥 충분히 좋은 수업이지만 재미가 없어. 약간 몰입을 못할 것 같은 수업. 토론 방식의 참여하는 수업이 훨씬 재밌었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생각으로 보인다. 관심 없었던 주제였지만 오히려 필수 수업이었기 때문에 좋다는 학생도 있었다. 수업 내용이 어렵다거나 재미가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수업이든지 재밌어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수업이 된다. 토론 형태의 수업처럼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조사하는 수업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았다.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더 고안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우리는 ‘성’이 학교에서 어떻게 바라봐지고, 대해지길 바라면서 수업을 개설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일까.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성 사건이 안 일어나야지. 일단 성 사건이 안 일어나야 뭐가 되든가 하지.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필수수업 말고도 학교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다시 그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냥 피해 받는 사람들 안 생기게”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런 것들 (수업)을 하는 게 아닐까.”

“일반학교는 주입식 교육으로 계속 똑같은 인간 공장처럼 그냥 찍어내는 건데, 우리 학교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학교가 아닐까.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명의 진짜 사람을 만들어주는 학교? 다른 학교가 공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수제작 하는 장인들이 모여 있는 거지. 진짜 참 사람을 만들어주는 학교.”

결국 결론은 하나다. 우리 모두는 피해 받는 사람 없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이것은 성에 특정한 것이 아닌 다른 모든 면에서 동일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 더 바람직한 모습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떠나 할 것 없이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도출하여 그 결론대로 행동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항상 자각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가야한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은 구성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바뀐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속적인 활동이나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폭력, 성추행, 성차별 등에서 안전해 지려면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 것이다. 피해 주는 사람도 없고 피해 받는 사람도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수자 선생님, 16학년 이다솜, 정우진, 박연우, 이기휘, 15학년 이봄, 윤수민, 서명주, 김한별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김담 사진기자(5학년)

가방은 유치원생 때부터 길게는 죽기 전까지도 우리 곁에서 편리함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전부 겉모습도 다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또한 다르다.

간디학교만 봐도 필기구와 노트가 전부이거나 안 들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 방면 과제들과 수업 자료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학생들도 있다.

우리는 가방에 무엇을 담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억지로 넣고 다니는가, 표현해봤다.



안녕하세요. 5학년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싶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희는 2학기 해외이동 학습으로 인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아쉬랍학교, 록빠 라는 곳을 방문하게됩니다.

아쉬랍 학교는? 인도에는 수천년간 카스트 제도 라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없어진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영향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아쉬랍 학교는 신분제도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

아시아브릿지에서 지어준 학교 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후원해주는 여러 단체에서 후원이 끊기고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지고 있어서
짓고있던 학교 건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해주신다면 미완성인 아쉬랍학교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가촉천민- 카스트제도의 최하위 계층으로 사람들과 당아서도 안될 정도로 큰 차별을 받았다.
당연히 배울 권리도 없어 학교도 갈 수 없었다.)

록빠는? 록빠는 티베트어로 친구 또는 돕는 이라는 뜻입니다.

록빠는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난민촌을 근거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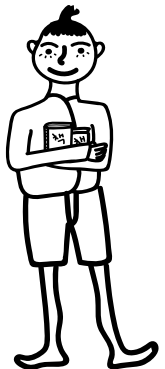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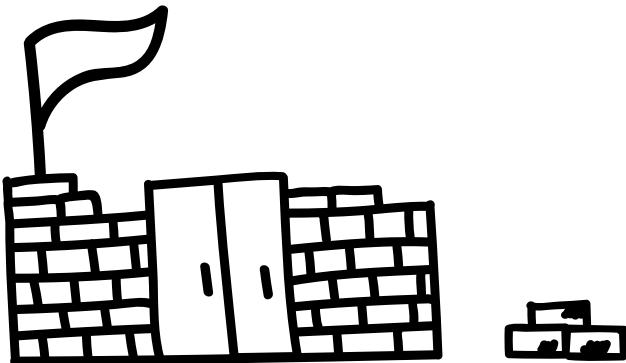
티베트 난민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자립을 지원하는 NGO 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오랜시간 자신들의 독특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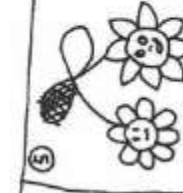
하지만 1950년 중국의 침략 이후 6000개 이상의 절과 사원이 파괴되고, 백만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현재까지 티베트 문화에 대한 억압과 파괴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티베트 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와 가족을 떠나 언어, 문화, 기후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서적 물질적 어려움이 큼니다.

후원 해주신 돈은 티베트 난민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자립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곳에 골고루 쓰입니다.

후원해 주신 돈은 제천간디학교 이름으로 기부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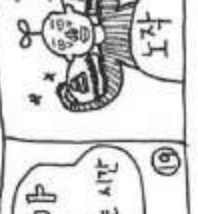


각자
광화문, 제천, 동구, 부산으로
돌며
3.1절을 기념 했습니다

도미리한담은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를
만들러 권합니다
동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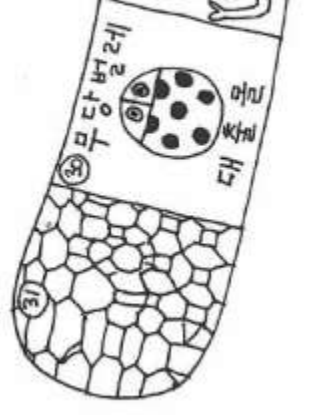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전고생 3/1이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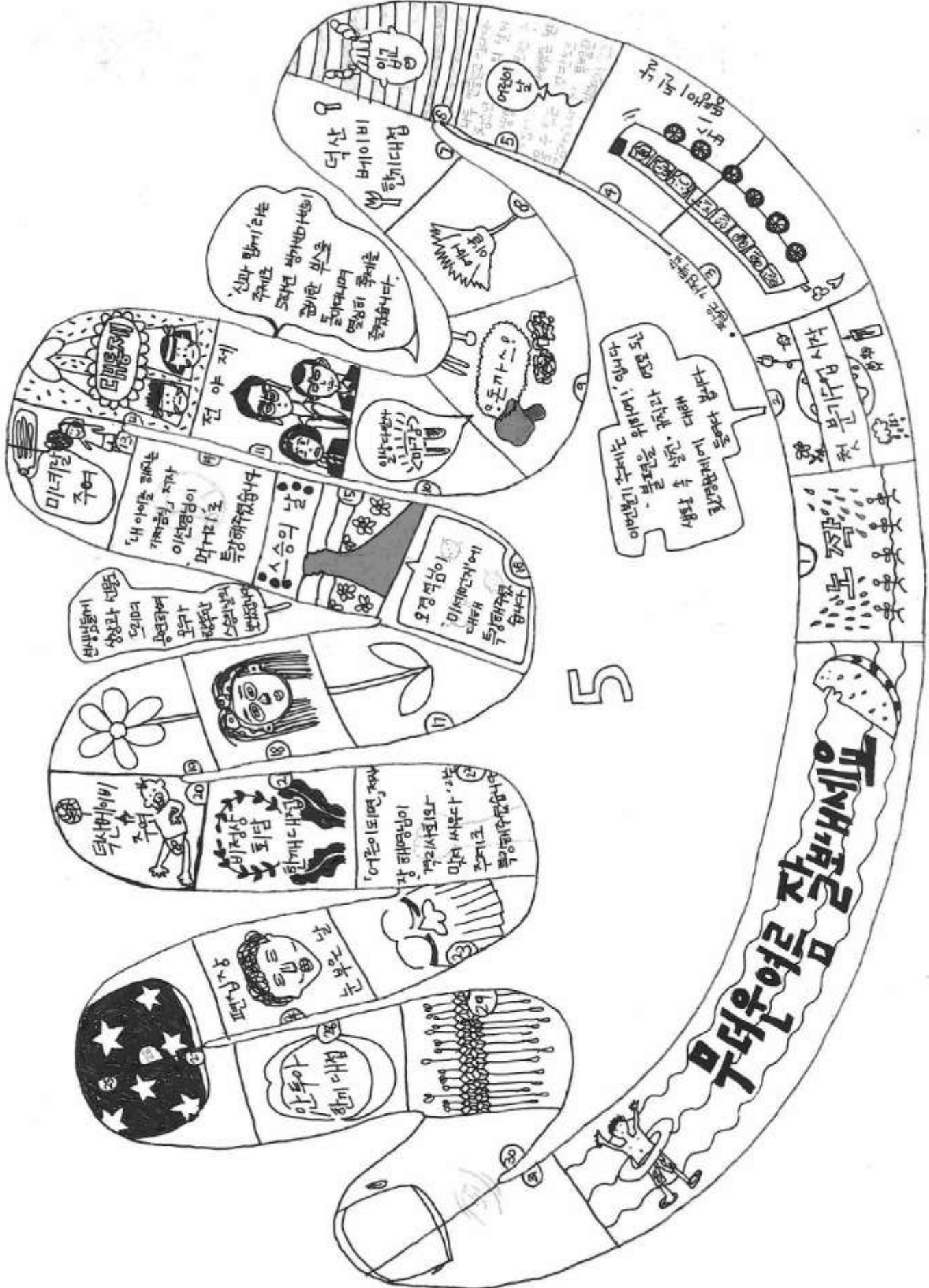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다들
기대합니다
교과
교과
교과



1. 건강
2.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3. 어린이 날

4. 우리 아이들
5. 우리 아이들
6. 우리 아이들
7. 우리 아이들
8. 우리 아이들
9. 우리 아이들
10. 우리 아이들

11. 신과 함께
12. 50년 밤가면서
13. 관개관
14. 돌이켜볼 때
15. 열정의 불꽃
16. 즐겁습니다.
17. www.nba.com
18. 우리
19. 우리

20. 우리
21. 우리
22. 우리
23. 우리
24. 우리
25. 우리
26. 우리
27. 우리
28. 우리
29. 우리
30. 우리

31. 우리
32. 우리
33. 우리
34. 우리
35. 우리
36. 우리
37. 우리
38. 우리
39. 우리
40. 우리

41. 우리
42. 우리
43. 우리
44. 우리
45. 우리
46. 우리
47. 우리
48. 우리
49. 우리
50. 우리

51. 우리
52. 우리
53. 우리
54. 우리
55. 우리
56. 우리
57. 우리
58. 우리
59. 우리
60. 우리

61. 우리
62. 우리
63. 우리
64. 우리
65. 우리
66. 우리
67. 우리
68. 우리
69. 우리
70. 우리

71. 우리
72. 우리
73. 우리
74. 우리
75. 우리
76. 우리
77. 우리
78. 우리
79. 우리
80. 우리

81. 우리
82. 우리
83. 우리
84. 우리
85. 우리
86. 우리
87. 우리
88. 우리
89. 우리
90. 우리

91. 우리
92. 우리
93. 우리
94. 우리
95. 우리
96. 우리
97. 우리
98. 우리
99. 우리
100. 우리

무더운 여름 즐기기

5

석현이와 기범이의 간디학교 관찰기



3월 1일 1분기 주제가 역사였다. 4개의 지역으로 퍼져 3.1운동 100주년 축제를 참여했다. 충주는 충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과 3.1절 관련된 공연을 했고, 제천에서는 영화 '항거'를 보고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부산에선 연극을 봤다. 서울은 광화문에서 기념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들었다.

3월 14일 비폭력 서약식을 했다. '간디걸즈'의 멋진 공연과, 각 반별로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발표했다.



평화의 비둘기 그림에 종이로 접은 하트를 붙여서 비둘기를 완성시켰다. 시 낭독을 하고 비폭력 서약식의 꽃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다.



3월 15일 동아리 한마당을 했다. 1학년들에게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설명해주고 동아리들이 지금까지 연습한 것을 뽑내는 한마당을 했다. 동아리는 '솔피바람', '디폴스', '미지정' 등등 동아리들이 나와서 각자 동아리 소개를 하고 공연이 있으면 공연을 했다.

3월 16일 2019년 입학식 콘셉트는 연애대상이었다. 강당에 레드카펫을 깔았다. 이름을 호명하면 가족과 1학년들이 나와서 상으로 반을 배정받고 소감 발표를 했다. 1학년들 사이에서 제일가고 싶은 반이 '덕산베이비' 반이었다. 이유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해서였다.





3월 20일 노작이 찾아왔다. 밭을 가면서는 해맑았지만 쌓여있던 비료를 보고서는 텐션이 낮아졌다. 하나당 20kg 이라고 했다. 힘이 어느 정도 있으면 1개, 힘이 좋으면 2개, 힘이 없는 사람은 여러 명이 함께 들었다. 밭에 비료를 옮겨 비료를 뜯고 밭에 막 뿌렸다. 다 끝나고 나니 옷은 땀 냄새와 비료 냄새로 짝 차있었다.

4월4일 세월호 문화의 밤을 맞아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학교에 오셨다. 강당에 모여 질문지나 유가족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물어봤다. 상황과 유가족 분들의 입장을 말해주셨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4월 10일 4.16, 4.19를 맞이하여 4.19 마라톤은 뛰었다. 다들 뛰고 싶은 사람과 뛰거나, 혼자 뛰어서 1등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 코스가 그닥 길진 않았다. 비가 와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같이 뛰는 사람과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걸으니 비오는 것도 모르고 금새 학교로 도착했다.



권윤서 기자(4학년)

이번호도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게으름 피우다가 마감도 못 지키고 많이 부족한 봄 여름호였습니다. 다음 호에는 부지런한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ㅜㅜ 우제 오빠 정말 수고했고 다음 호에 만나요~



김담 사진기자(5학년)

5년 사진기자 인생중에 단독기사는 없었는데 마지막을 축하하듯 처음으로 단독기사를 완성했네요...ㅎ 처음에 일상다반사를 들어올 때 기대했던 저의 모습이 이제서야 저에게 온 것 같았습니다. 의미있고 깊게 생각해 야되는 사진을 좋아하는 저에겐 사실 사진기자보단 사진 작가가 어울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5년 내내 저를 북으며 성장하게 만들었던 일상다반사는 이제 끝입니다. 진작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걸 그랬습니다. 기사 사진이 아닌 저의 작품(전시회라고 생각하고 봐주면 더 좋겠습니다)도 좋아해 주시고 일상다반사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사드립니다.



김서준 기자(3학년)

처음으로 무거운 분위기의 기사를 써보았습니다. 기사 계획서를 당당하게 써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감 2주 전에 밤을 새워가며 마감했어요. 매번 미루지 말자고 하지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ㅠ.ㅠ 그래도 이번 기사를 쓰면서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 다음 호에서는 더 새롭게 돌아올게요!! 안녕영



박석현 신입기자(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상다반사에 처음 오게된 박석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간짚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제 부터 간디언에서 활약할거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박우제 편집장(5학년)

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윤수민 기자(5학년)

개인무빙,해외이동학습, 대동제 전야제, 주제여행, 진로, 동아리 등등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기사까지 쓰러니 죽을 뻔 했어요...하하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사네요~ 저는 떠납니다. 안녕히계세요~



이기범 신입기자(1학년)

처음으로 간디인을 써봤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형, 누나들이 잘 도와줘서 잘 마무리했다. 다음호도 기대 해주시길



이담 삽화기자(3학년)

스케줄러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보았어요! 모두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D수고 하셨습니다!!



이성민 기자(4학년)

올해부터 간디인이 다시 개편되어서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일상다반사에서 쓴 기사 중에 가장 진지한 기사를 쓰게된 거 같아요. 그만큼 부담도 되고 힘들었지만 뿌듯함도 큼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부디 너무 덥지 않길 바라며 다음 호에서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연지 기자(5학년)

너무 할일이 많아서 미루다보니 막바지에 너무 힘들었고 마감늦어서 죄송해요



조예나 기자(2학년)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을 늦었네요ㅎㅎ 다음호엔 꼭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최현서 사진기자(2학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게되었습니다. 간디인상 재밌게 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보내세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20일까지 간디공동체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와 물품 후원 등 후원인의 따뜻한 마음은 제천간디장학회, 제천간디학교 체험학습비와 사회 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절마다 보내드리던 소식지를 올 해부터 한 학기에 한 번 보내드립니다. 더 집중해서 알차고 반가운 소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MS후원 403명 2,299건 33,148,000원

강경선 강나영 강명이 강미리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승구 강영상 강은택 강재은 강치호 강호수 고경태 고은주 고희라 공지환 광영현 광용호 구경란 구자민 권승호 권영숙 권호정 김가영 김갑유 김경미 김경민 김경민 송재훈 김경수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식 김구환 김남수 김단아 김대석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관경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희 김문현 김민환 김미선 김미애 김미정 김백영 김병식 김봉자 김삼부 김상덕 김선화 김선희 김수진 김수주 김승진 김아미 김영경 김영규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철 김왕규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위정 김유태 김윤성 김윤찬 김윤하 김은미 김은숙 김재성 김정라 김정미 김정수 김종성 김종우 김종태 김지연 김지영 김지혜 김창년 김학규 김한기 김학동 김 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란 김혜숙 김혜정 김호연 김희균 나동은 나영미 나윤정 남용기 남지은 남호섭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수경 라기호 라성호 마석훈 마장애 문성룡 문신호 민병선 박경애 박경일 박경호 박경희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미정 박미향 박서영 박선애 박성수 박영문 김수정 박영선 박인옥 박장식 박진수 박현숙 박혜연 박호성 박효정 박효진 박후조 박홍식 방대현 배영수 배필늘 백미숙 백병부 변기영 빈종일 서덕호 서자스민 서홍원 성정미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순희 손정민 손정현 손진근 손진윤 송민혜 송지은 신동운 신영호 신윤숙 신주영 신지성 신지수 신한술 신한정 안두용 안미숙 안성현 안정환 안철철 안주연 안주현 안준영 안진희 안찬주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송이 양정호 양희숙 양후남 엄상순 여지현 오경석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의석 오정훈 용석희 우성섭 우성호 우종걸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병식 유선기 유아름 유아희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중선 유지상 유춘자 유태규 유태용 윤키희 윤보영 윤수민 윤숙경 윤송재 윤양수 윤은주 윤정숙 윤호선 이광일 이근행 이기호 이덕래 이도연 이등우 이명조 이미경 이민수 이민주 이민지 이병근 이병규 이보완 이 불 이봉준 이상래 이상복 이상윤 이상현 이산애 이산재 이소안 이수미 이수연 이소화 이슬비 이승섭 이승욱 이승환 이시하 이영주 이용수 이원범 이윤종 이윤철 이은정 이은희 이인호 이재성 이재웅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연 이정열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준용 이지는 이진우 이철희 이한복 이한진 이항미 이현주 이혜림 이흥구 이효경 임남규 임다운 임병포 임봉규 임선일 임영빈 임은숙 임재혁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수연 장진숙 장희수 장희숙 전경일 전경희 전미영 손현석 전병택 전수미 전영복 전해룡 정나형 정문자 정상인 정성욱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정민 정종명 정지은 정 철 정태규 정희정 조경선 조경희 조동일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성은 조숙자 조영도 조옥순 조윤정 조은아 조찬규 조하한 주주자 지명석 진숙경 진영준 진은주 차상진 차영순 채신자 채현자 천희진 최낙진 최도연 최민현 최범식 최선주 최선희 최소영 최 숙 최승주 최신영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 용 최인화 최일훈 최재화 최중현 최진웅 최철훈 최홍석 허승렬 하영아 하윤주 하중수 하태광 한광덕 한민경 한 현 하루리 허미경 허영순 홍금자 홍수연 홍수정 홍영옥 홍채현 홍현일 황국덕 황들남 황소연 황현정 덕산C주유소 (주)두인기전 명보산업개발(주) 성호종합주방 선미식품 (주)우영산업 어통수신(주) 유원유통 형제수산

- * 상반기에 과일, 도서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주변 분들에게 간디공동체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계좌 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 간디공동체는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